

#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 연구

-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

전미리\*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A Study on the Types of Social Capital Perception of Residents Participating in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Woolcock's Social Capital Theory -

Mi Ri Jun

Extension Specialist,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Korea

### Abstract

The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pursuing various resident-driven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r rural developm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software projects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order to effectively involve resident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residents'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is still passive, while passive residents' involvement creates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among residents in the proc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poor operation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be a basis for inducing voluntary community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disclosing the intention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s internal solidarity with social capital and connection with external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195 rural residents, three group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awareness. While individualist groups with low integration and social capital were 25.1%, they were more integrated, but the average family-oriented group was 42.5%, and social-development groups with high integration and linked social capital were 32.3%.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at the social capital of the resident commun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both the internal solidarity (integrity) and the external community connection (connectivity) in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Key words:** dysfunction of social capital, community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rogram, residents' participation

### 1. 서론

주민참여 기반 농촌지역 활성화의 기본전제는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라 할 수 있다(류석춘, 2003).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하부구조로서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및 조직 간의 협동적이며 집단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을 장려한다(박희봉, & 김명환, 2001)는 점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주요어: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 지역개발, 농촌개발 프로그램, 주민참여

\* 교신저자(전미리) 전화: 031-229-5852, e-mail: jmr0403@gg.go.kr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민참여 기반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사업 보다는 주민역량강화, 문화·복지,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소극적이며, 주민의 일부만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계획단계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도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정원, 2013). 수동적인 주민참여는 결국 사업추진 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부진 문제, 주민 간 갈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향상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도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주민참여와 일부 주민에게 참여가 집중되는 것은 기존 연구의 2가지 한계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이루어진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은 농촌공동체 내부적인 관점에 집중되면서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붕괴 또는 고갈현상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농촌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으며, 농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과 사업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서로 간의 융합과 연계성이 증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왔던 반면, 공동체 내부의 너무 강한 결속은 다른 공동체 배척, 공동체 규범의 무리한 순응 문제와 같은 역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공동체 내부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인지에 대한 고려와 새로운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동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민 개인의 인식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주민참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공동체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본인 만큼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각 구성원은 소속단체 유무, 정보획득 정도, 모임참여 정도, 갈등 경험 등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행동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주민 개인의 사회적 자본 인식에 따라 사업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두 가지 한계에 주목하여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농촌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과 농촌지역 개발 참여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찰

#### 2.1.1. 사회적 자본의 특징

사회적 자본 개념의 시작은 Bourdieu, & Passeron(1967)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효시가 되었다. Bourdieu는 문화적 자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80년대 들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김상춘, 2004; 홍영란, 2006). Coleman, Putman, Bourdieu 등의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 사회적 자본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다양한 의미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김치구, 2018).

Loury(1977)는 사회적 자본을 기술의 습득, 시장에서 가치 있는 특성을 보조 혹은 촉진하는 사람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유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단체 구성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의 제도화된 관계를 인정하게 된 결과, 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게 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함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행위자들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 구조의 한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Burt(1992)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차원을 행위자들 간의 일반적 연결패턴, 즉 행위자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의 위상학적 구조로 정의하였다.

Putnam(1993)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 협력행위의 촉진은 결국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고 하였다. Woolcock(1998)은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연결망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현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과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확립(Fukuyama, & Fancis, 2002), 개인과 집단, 권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대한 기초 역할

을 하며(Brown, & Ashman, 1996),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Woolcock, 1998)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자본은 기존의 경제, 물리, 인적자본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가치를 갖는다(박재형, 2014). 사회적 자본 특성은 첫째,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둘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이나 집단 사이에서 형성되고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집단이나 구성원 모두의 자원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공유되는 이익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형성된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이익이며,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갖는다(유석춘, & 장미혜, 2002).

셋째,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므로 사회적 자본의 거래는 Zero-sum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가 모두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증가하는 Positive-sum의 관계로 나타난다.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거래에서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Zero-sum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유석춘, & 장미혜, 2002).

넷째,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 한번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서로의 관계를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형, 2014).

이렇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의 소유자는 사회집단 전체 구성원이며,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로 존재하여 경제, 인적자본과는 달리 눈으로 보이는 자본의 형태는 아니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관심은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이 규범 또는 연결망을 통하여 협력하고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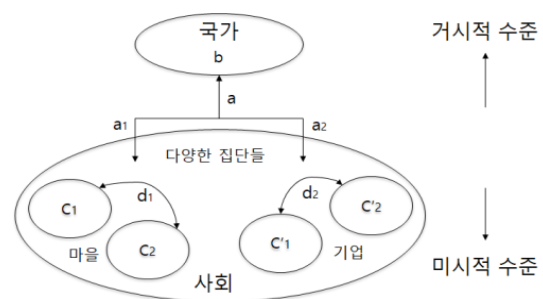
### 2.1.2.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

Putnam(1993)이 집단의 결속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집중

했다면, Woolcock(1998)은 사회적 자본의 결속방향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자본을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의 두 가지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김철희, & 하혜수, 2016). ‘배태성’과 ‘자율성’은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태성이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공동체 내부에서의 연결인 ‘통합성’을 말하는 반면,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관계인 ‘상승작용’을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공동체를 벗어난 연결망인 ‘연계성’을 의미하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국가의 제도적인 역량과 신뢰수준을 의미하는 ‘완전성’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Woolcock은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는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과 미시적 수준의 배태성과 자율성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 1).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된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혁신적 기획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구현하는 지역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정동일, & 성경룡, 2010).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의 차이에 의해 지역발전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Woolcock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분석들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다(임설아, & 정성호, 2017).

Woolcock은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상향적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에 높은 통합성이 형성되어야 하고, 공동체 외부와의 연계성이 적절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국가차원에서 하향적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a. 상승작용 / b. 조직적 완전성  
c. 통합성 / d. 연계성

자료 : 류석춘 등, 2003, 사회적 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p263

<그림 1>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

위한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제도적·조직적 측면에서 정부 관료제와 제도가 적절히 구축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전국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김철희, & 하혜수, 2016).

Woolcock은 배태성과 자율성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의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기회, 비도덕적 가족주의, 비도덕적 개인주의, 아노미의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표 1). 거시적 차원의 상승작용과 완전성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발전국가, 약한 국가, 붕괴된 국가, 약탈국가로 구분하고 있다(표 2). 좀 더 나아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Woolcock의 4가지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회적 자본의 환경은 미시적 차원에서 통합성과 연계성, 거시적 차원에서 상승작용과 완전성이 모두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자율성의 환경이다. 반면 발전을 이루기에 가장 안 좋은 사회적 자본의 환경은 미시적 차원에서 통합성과 연계성이 모두 낮고, 거시적 차원에서도 상승작용과 완전성이 모두 낮은 무정부적 개인주의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Woolcock은 미시적 수준에서 통합성과 연계성의 정도가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예컨대 빈곤한 공동체에서 발전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주류사회와의 연계성이 형성되어야 한다(임설아, & 정성호, 2017)는 것이다. 연계성 사회적 자본이란 지역사회 내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립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 지역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전문가 집단, 지원기관, 중앙정부, 산업체 등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를 의미하기도 한다(이미숙, 2017). 결론적으로 공동체에서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과 공동체 외부로의 연결망이 동시에 높은 수준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낮거나 둘 다 낮은 경우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철희, & 하혜수(2016)의 연구에서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분석틀을 기초하여 성미산 마을 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인 구성원 내부의 유대관계와 외부와의 연계성을 적절히 확보하였으나,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인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 관계형성 및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설아, & 정성호(2017)는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도입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인이 마을 내부의 통합성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의 연계성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귀농·귀촌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2017)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능력을 중심으로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 관에서 1970년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구축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개발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의 마을단위에서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의 많은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적 통합과 더불어 외부와의 연계성이 성공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2.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 2.2.1. 주민참여의 중요성

주민참여 개념에 대해 Huntington, & Nelso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로 주민참여를 정의하였다. Cunningham(1972)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Irland(1975)은 주민참여를 공공분야에서의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체적인 구조라 보기도 하였다.

〈표 1〉 미시적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구분	통합성		
	낮음	높음	
연계성	낮음	비도덕적 개인주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높음	아노미	사회적 기회

〈표 2〉 거시적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구분	완전성		
	낮음	높음	
상승 작용	낮음	무정부 상태 (붕괴된 국가)	비효율, 비효과성 (약한국가)
	높음	약탈, 부패 (약탈국가)	협력, 책임성, 유연성 (발전국가)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의미는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은병, 김성록, & 윤준상, 2012). 그러한 주민참여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식을 개발목표에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안종철, & 이성호, 2003).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 없이 외부의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다(박미애, 2008). 더욱이 농촌개발사업은 복잡하고, 지역주민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이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는 중요하다(안재문, 김소윤, & 박덕병,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람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민참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박병덕, 임광명, & 안재문, 2018).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운영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절대적이나, 참여의 수준과 단계, 방법 등에 따라 필요역량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갖는 태도와 자세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대하여 갖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다름 아닌 자치의식이라 할 수 있다. 자치의식이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며, 지역이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토대로 하여 주위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생각과 태도(강형기, 1989)를 말한다.

주민참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주민의 공동체 인식, 시민 인식 즉, 자치의식의 성숙을 촉진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려 할 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일이나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치형 주민으로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감시활동은 정책당국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류소영, 2010)는 점에서 더욱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전인철(2014)은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자기학습의 과정이 되어 결국,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농촌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점차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치의식이 변화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참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정책의 효과성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의 제도적 측면의 중요성은 첫째, 집행부의 합리적인 정책 및 사업 결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와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낸다. 주민 상호간, 주민과 자치기관간에 정보의 흐름을 열어 문제의 원인과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김수미, 2013)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숙을 촉진할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적 획일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킬 수 없었다.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여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다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알맞은 사업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이렇듯 주민 의식변화와 제도적 변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2.2.2. 주민참여 단계

주민참여의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을 개발한 Amstein(1969)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8단계로 구분되는 이 주민참여 단계는 다시 비참여 단계의 조작과 치료, 형식적 참여단계의 정보제공, 자문, 회유, 실질적 참여단계의 협동, 권력위임, 주민통제의 단계로 구성된다. 비참여 단계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조

작),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시민에게 전달(치료)하는 단계이다.

상징적 참여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정보제공), 여론조사 등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자문), 주민대표성을 띤 자문위원회를 활용(회유)하는 등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로부터 정보는 제공받지만, 주민이 정책결정권을 갖지는 못하는 단계이다.

실질적 참여단계의 협동단계부터는 주민에게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시민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권력위임의 단계에서는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단계이며, 주민통제단계에서는 주민이 행정의 모든 면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는 주민참여는 보통의 경우 실현하기 어렵다(장철호, & 한상연, 2004).

Wates(2010)는 Arnstein의 모형을 축약하여 4단계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정보제공(Information)단계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에게 통보하기만 하는 단계이다. 협의(Consultation)의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공받아 정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파트너십(Partnership)의 단계에서는 정부와 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위임자조(Self help)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단독으로 사업을 기획·계획하고 실행하며 관리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Arnstein과 Wates의 주민참여단계는 정부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양 극단적인 주민참여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합하게 수정·보완된 주민참여단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OECD(2001)는 주민참여의 단계를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의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rnstein, Wates의 주민참여 단계와 비교하여보면 첫째, 정보제공단계는 Arnstein의 정보제공단계와 상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주민으로 단일방향으로만 정보가 제공된다. 둘째, 협의단계는 Arnstein의 자문, 회유, 그리고 Wates의 협의단계와 상응하는 단계이다. 정부와 주민은 서로의견을 교환하지만 모든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 단계로 상징적, 소극적인 주민참여 단계에 속한다. 마지막 능동적 참여단계는 Arnstein의 협동, 권력위임, Wates의 파트너십과 위임자조단계의 일부분에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OECD의 주민참여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능동적 참여단계에서는 의사

결정과 정책결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부 권한을 갖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Arnstein과 Wates의 주민참여 마지막 단계인 주민통제, 위임자조 등 주민이 행정과 분리되어 완전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단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모든 권한을 주민이 가질 수는 없으며,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Wates의 주민참여의 가장 하위단계인 정부의 정보독점이나 Arnstein의 비참여 단계에 속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배제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단계는 OECD의 주민참여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된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함임으로 특정 농촌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농촌지역으로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마을단위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1:1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2주에 걸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농촌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World Bank(2004)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했던 조록환(2003), 최홍렬(2004), 김태준 등(2006), 김지현(2008), 전용식(2008), 박용순(2009), 노정민(2013), 정윤식(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통합성과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을 각각 신뢰,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사회적 결속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1~5점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여단계의 측정은 진양호, 안상훈, & 김예영(2016), 정남식, &

김용근(2017), 유동숙, & 홍경완(2017), 손정기(2016), 김수(2018), 최윤진(2012), 이승원(2016), 이용학(2015), 조록환(2003), 홍종규(2006), 이수(2016), 김인규(2007), 허주열, & 이성근(2009), 이상호, & 박재동(2009), 김재원(2017), 전용식, & 이종호(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류하였던 OECD의 참여 단계인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로 참여의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주민에게 어느 정도로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 1~5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 3.3.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총 203부로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거된 8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195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요인분석,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95	49.0	연령	30대 이하	15	7.7
	여자	99	51.0		40대	28	14.4
결혼유무	기혼	177	91.7		50대	69	35.4
	미혼	16	8.3		60대	57	29.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26	13.4		60대 이상	26	13.3
	중학교 졸업	31	16.0	직업	농림어업	62	32.3
	고등학교 졸업	70	36.1		회사원	8	4.2
	대학교 졸업	56	28.9		학생	1	0.5
	대학원 졸업	7	3.6		주부	36	18.8
	기타	4	2.1		자영업	32	16.7
			서비스직		11	5.7	
연평균 소득	1천만 원 이하	41	21.5	전문직	15	7.8	
	1~2천만 원 이하	42	22.0	무직	7	3.6	
	2~3천만 원 이하	32	16.8	기타	20	10.4	
	3~4천만 원 이하	26	13.6	거주지	경기도	90	46.2
	4~5천만 원 이하	24	12.6		충청남도	57	29.2
	5천만 원 이상	26	13.6		충청북도	7	3.6
주민특성	원주민	127	65.8		강원도	33	16.9
	이주민	66	34.2		경상남도	2	1.0
소속단체 유무	있음	140	71.8		인천	6	3.1
	없음	55	28.2	거주기간	5년 이하	62	33.2
직책유무	있음	78	40.0		5~10년	24	12.8
	없음	117	60.0		10~20년	16	8.6
사업참여 유무	있음	59	36.2		20~30년	77	41.2
	없음	104	63.8		30년 이상	8	4.3

## 4. 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95명(49.0%), 여자가 99명(51.0%)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연령으로는 30대 이하가 15명(7.7%), 40대가 28명(14.4%), 50대가 69명(35.4%), 60대가 57명(29.2%), 60대 이상이 26명(13.3%)로 50대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고령화되어 있어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소수이고,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이 177명(91.7%), 미혼이 16명(8.3%)로 나타나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없고, 전반적인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았던 만큼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표 3).

직업으로는 농림어업이 62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36명(18.8%), 자영업이 32명(16.7%)으로 높았다. 그 외에 기

타가 20명(10.4%), 전문직이 15명(7.8%), 서비스직이 11명(5.7%), 회사원이 8명(4.2%), 무직이 7명(3.6%), 학생이 1명(0.5%) 이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농림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직 등 타 직업군의 비율도 다수였다. 이는 농촌의 환경이 변화한 만큼 농촌주민도 농업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지역 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민 특성에서 원주민이 127명(65.8%)로 다수였고, 이주민이 66명(34.2%)이었다. 거주기간으로는 5년 이하가 62명(33.2%), 5~10년 이하가 24명(12.8%), 10~20년 이하가 16명(8.6%), 20~30년 이하가 77명(41.2%), 30년 이상이 8명(4.3%) 이었다. 소속 단체의 경우 있다는 응답자가 140명(71.8%), 없다는 응답자가 55명(28.2%)로 마을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직책 유무로는 있다는 응답자가 78명(40.0%), 없다는 응답자가 117명(60.0%)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더욱 많았으나, 특정 직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비율도 높았다.

## 4.2.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 4.2.1. 통합성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은 직각회전방식(Orthogonal rotation)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이 0.4이하인 변수는 제외하였다. 통합성 사회적 자본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은 공통 요인에 묶인 질문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

여 통합성 사회적 자본의 하위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이 0.929로 0.5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값의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요인에는 주민 간 신뢰, 마을단체 신뢰가 포함되었다. 이는 통합성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정의되는 ‘통합성 신뢰’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16.95%를 차지하였다(표 4).

두 번째 공통 요인에는 모임을 자주 함, 정보를 잘 공유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민 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합성 네트워크’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13.29%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공통 요인은 마을규범을 통해 마을을 운영함, 마을운영을 위한 체계를 잘 갖추, 마을운영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민 간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통합성 규범’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19.75%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 공통 요인에는 약속을 잘 지킴, 모임에 잘 참석함, 서로 친밀하게 지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이 포함되었다. 이는 주민 간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통합성 결속’으로 명명하였다. 약속을 잘 지킴, 모임에 잘 참석함의 항목은 본래 각각 통합성 신뢰, 통합성 네트워크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는 두 항목 모두 통합성 결속의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는 약속을 잘 지키거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 또한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행위로서 통합성 결속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4.77%를 차지하였다.

〈표 4〉 통합성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항목	평균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 $\alpha$ )
신뢰	주민간 신뢰	3.57	0.666	0.679	2.034	16.952	.836
	마을단체 신뢰	3.81	0.727	0.762			
네트워크	모임을 자주함	3.50	0.616	0.709	1.595	13.292	.883
	정보를 잘 공유함	3.41	0.754	0.908			
통합성	마을규범을 통해 마을을 운영함	3.76	0.755	0.791	2.370	19.754	.888
	마을운영을 위한 체계를 잘 갖추	3.63	0.739	0.771			
	마을운영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함	3.86	0.615	0.770			
결속	약속 잘 지킴	3.70	0.602	0.695	2.973	24.775	.887
	모임에 잘 참석함	3.55	0.409	0.550			
	서로 친밀하게 지냄	3.75	0.692	0.78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줌	3.90	0.775	0.816			
	갈등을 원만 하게 해결함	3.71	0.738	0.737			
통계량	전체 설명력 : 74.773%, KOM 측도 : 0.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1920.787, 유의확률 : 0.000**						



통합성 사회적 자본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분류된 4가지 공통 요인은 통합성 신뢰, 통합성 네트워크, 통합성 규범, 통합성 결속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4.77%,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은 0.836, 0.883, 0.888, 0.88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약속을 잘 지킴과 모임에 잘 참석함의 2가지 항목이 통합성 결속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거되는 항목 없이 모두 이론적 고찰에서 예상하였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을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4.2.2. 연계성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연계성 사회적 자본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은 공통 요인에 묶인 질문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하위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이 0.929로 0.5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값의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요인에는 인근 마을 신뢰, 행정기관 신뢰, 행정기관 업무 공정함이 포함되었다. 이는 통합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연계성 신뢰’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17.08%를 차지하였다(표 5).

두 번째 공통 요인에는 모임을 자주 함, 정보를 잘 공유함, 모임에 잘 참석함, 규범을 통해 의사결정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민 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성 네트워크’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4.32%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공통 요인은 협력체계가 잘 마련됨, 협력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마을의

외부기관과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연계성 규범’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9.97%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 공통 요인에는 친밀하게 지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이 포함되었다. 이는 마을이 인근 마을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외부 조직과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연계성 결속’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6.06%를 차지하였다.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분류된 4가지 공통 요인은 연계성 신뢰, 연계성 네트워크, 연계성 규범, 연계성 결속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4.773%,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은 0.807, 0.916, 0.926, 0.931로 신뢰할 수 있었다. 외부 조직과 규범을 통해 의사결정함의 항목이 네트워크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거되는 항목 없이 모두 이론적 고찰에서 예상하였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을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4.2.3. 참여단계 요인분석

참여단계에서 추출된 3개의 요인은 공통 요인에 묶인 질문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참여단계의 하위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이 0.942로 0.5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값의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표 6).

먼저 첫 번째 공통 요인에는 정보지를 읽어봄, 주민의견을 들어봄, 이장 의견을 들어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봄의 4가지 항

〈표 5〉 연계성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항목	평균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 $\alpha$ )
신뢰	인근마을 신뢰	3.58	0.469	0.472	2.050	17.086	.807
	행정기관 신뢰	3.62	0.773	0.742			
	행정기관 업무 공정함	3.56	0.784	0.722			
네트워크	모임을 자주함	3.13	0.825	0.868	2.919	24.325	.916
	정보를 잘 공유함	3.24	0.720	0.768			
	모임에 잘 참석함	3.34	0.640	0.688			
	규범을 통해 의사 결정함	3.44	0.439	0.777			
규범	협력체계가 잘 마련됨	3.41	0.606	0.931	1.197	9.978	.926
	협력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함	3.51	0.535	0.838			
결속	친밀하게 지냄	3.57	0.740	0.755	3.127	26.062	.93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줌	3.64	0.863	0.880			
	갈등을 원만 하게 해결함	3.59	0.793	0.852			
통계량	전체 설명력 : 74.773%, KOM 측도 : 0.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1920.787, 유의확률 : 0.000**						

〈표 6〉 참여단계 요인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요인적재량	공동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 $\alpha$ )
정보 제공	정보지를 읽어봄	3.85	0.784	0.737	3.745	23.403	0.902
	주민의견을 들어봄	3.96	0.797	0.774			
	이장의견을 들어봄	4.01	0.779	0.739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봄	4.02	0.681	0.779			
협약	사업설명회 참석함	4.17	0.657	0.829	3.357	20.984	0.943
	설문조사 협조함	4.22	0.698	0.789			
	의견을 제시함	4.02	0.623	0.771			
	주민교육 참석함	4.18	0.802	0.860			
적극적 참여	인터뷰에 협조함	3.91	0.587	0.714	4.519	28.242	0.919
	사업관련자와 소통함	3.94	0.606	0.600			
	우수사례 찾아봄	3.94	0.591	0.630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음	2.83	0.739	0.566			
	개인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음	3.26	0.741	0.648			
	주민협력을 유도함	3.65	0.757	0.748			
	정기적 회의 시간을 만듦	3.42	0.814	0.754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3.77	0.743	0.683				
통계량	전체 설명력 : 72.630%, KOM 측도 : 0.94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2909.581, 유의확률 : 0.000**						

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참여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머무르는 단계로 ‘정보제공’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3.4%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공통 요인에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함, 설문조사에 협조함, 의견을 제시함, 주민교육에 참석함, 인터뷰에 협조함의 5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참여의도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협약’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0.98%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공통 요인에는 사업 관련자와 소통함, 우수사례를 찾아봄,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음, 개인 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음, 주민협력을 유도함, 정기적 회의 시간을 만듦,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의 7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참여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제공과 협약의 단계를 넘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단계로 ‘적극적 참여’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8.24%를 차지하였다.

참여의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분류된 3가지 공통 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2.63%,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은 0.902, 0.943, 0.919로 신뢰할 수 있었다. 제거되거나 다른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 없이 모두 이론적 고찰에서 예상하였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을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4.2.4. 사회적 자본 인식수준별 군집분석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별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농촌주민의 통합성과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 인식 정도에 대하여 K-평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연구자가 군집 수를 정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군집 수로 분석을 진행한 후 군집의 표본분포를 토대로 연구방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표 7). 또한 각 군집의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8).

군집 1은 전체 표본 195명 중 49명(25.1%)으로 통합성과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 인식이 모두 낮은 집단이다. 통합성 신뢰의 평균이 2.85, 통합성 네트워크의 평균이 2.46, 통합성 규범의 평균이 2.80, 통합성 결속의 평균이 2.85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계성 신뢰의 평균이 2.81, 연계성 네트워크의 평균이 2.41, 연계성 규범의 평균이 2.43, 연계성 결속의 평균이 2.68로 분석되었다.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규범과 결속의 사회적 자본과 전체 평균에서 통합성이 연계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통합성과 연계성의 모든 요인이 평균 3.0이하로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군집 1은 Woolcock의 분류에 의하면 통합성과

〈표 7〉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별 군집분류

요인명	사회적 자본 수준별 집단(군집분석)			F값	
	개인주의 (n=49)	가족주의 (n=83)	사회발전주의 (n=63)		
통합성	신뢰	2.85	3.69	4.35	100.482**
	네트워크	2.46	3.32	4.41	138.116**
	규범	2.80	3.75	4.49	116.341**
	결속	2.85	3.69	4.45	137.734**
연계성	신뢰	2.82	3.47	4.38	105.425**
	네트워크	2.43	2.97	4.28	172.637**
	규범	2.42	3.32	4.46	203.420**
	결속	2.69	3.45	4.51	144.761**

\*\* p<0.01

〈표 8〉 군집별 사회적 자본 유형(통합성, 연계성)의 평균 차이

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주의	신뢰 통합성	2.85	0.59	0.432	
	신뢰 연계성	2.81	0.54		
	네트워크	통합성	2.46	0.59	0.420
		연계성	2.41	0.50	
	규범	통합성	2.80	0.69	3.621**
		연계성	2.43	0.55	
	결속	통합성	2.85	0.48	2.094*
		연계성	2.68	0.60	
	total	통합성	2.77	0.41	3.118**
		연계성	2.58	0.37	
	가족주의	신뢰 통합성	3.69	0.68	2.883**
		신뢰 연계성	3.46	0.54	
네트워크		통합성	3.32	0.63	3.113**
		연계성	2.97	0.51	
규범		통합성	3.75	0.54	4.919**
		연계성	3.30	0.59	
결속		통합성	3.69	0.48	3.007**
		연계성	3.45	0.63	
total		통합성	3.64	0.37	6.338**
		연계성	3.27	0.32	
사회발전주의		신뢰 통합성	4.35	0.65	-0.057
		신뢰 연계성	4.38	0.60	
	네트워크	통합성	4.41	0.63	1.420
		연계성	4.28	0.50	
	규범	통합성	4.49	0.53	0.275
		연계성	4.46	0.53	
	결속	통합성	4.45	0.47	-0.997
		연계성	4.51	0.45	
	total	통합성	4.43	0.44	0.867
		연계성	4.39	0.38	

\* p<0.05, \*\* p<0.01

연계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개인주의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자는 군집 1을 ‘개인주의’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체 표본 195명 중 83명(42.5%)으로 가장 큰 집단이었다. 군집 2는 통합성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의 평균 3.32를 제외한 신뢰, 규범, 결속이 각각 평균 3.69, 3.75, 3.69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3.5이상으로 통합성 사회적 자본 인식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계성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결속이 각각 평균 3.46, 2.97, 3.30, 3.45로 3점 이하로 낮거나 평균 정도 수준의 사회적 자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합성이 연계성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Woolcock은 통합성 사회적 자본이 높고 연계성 사회적 자본이 낮은 집단을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군집 2는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이 군집 1과 같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계성과 비교하여 통합성 사회적 자본의 인식이 높은 특징을 가지므로 본 연구자는 군집 2를 ‘가족주의’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 표본 195명 중 63명(32.3%)으로 통합성과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높은 집단이다. 통합성 사회적 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결속의 평균이 각각 4.35, 4.41, 4.49, 4.45로 높으며,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결속의 평균이 각각 4.38, 4.28, 4.46, 4.5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Woolcock은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이 모두 높은 집단을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사회적 기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는 군집 3을 ‘사회발전주의’로 명명하였다.

4.2.5.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징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먼저 성별에서 개인주의 집단에서 남자가 21명(42.9%), 여자가 28명(57.1%), 가족주의 집단에서 남자가 42명(51.2%), 여자가 40명(48.8%), 사회발전주의 집단에서 남자가 32명(50.8%), 여자가 31명(49.2%)으로 조사되어 각 집단 모두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집단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표 9).

연령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주의 집단은 60대가(7.7%)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집단에 비하여 30대와 40대의 젊은 층의 구성 비율이 15명(30.6%)으로 다소 높았다.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50대가 각각 37명(19.0%), 22명(11.3%)으로 높았으며, 30대와 40대 젊은 층의 구성 비율은 각각 14명(16.8%), 14명(22.2%)으로 개인주의 집단보다는 다소 낮았다. 모든 집단이 50대와 60대의 연령층이 두텁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주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30대부터 70대까지의 연령이 다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서도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주의 집단은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총 19명(38.7%)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주의 집단은 28명(33.7%),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20명(31.7%)의 순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개인주의 집단이 17명(8.8%), 가족주의 집단이 31명(16.0%),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22명(11.3%)으로 가장 많았다.

연 소득수준에서도 역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주의 집단은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14명(28.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연 소득수준의 분포도가 다소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2.6. 집단별 지역사회적 특징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지역사회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도를 보였다. 먼저 주민 특성에서 개인주의 집단은 원주민이 24명(12.4%), 이주민이 24명(12.4%)으로 동일한 비율이었지만,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는 원주민

<표 9>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징

요인명	사회적 자본 수준별 집단			전체 (n=195)	x <sup>2</sup>
	개인주의(N=49)	가족주의(N=83)	사회발전주의(N=63)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성별	남자	21(10.8)	42(21.6)	32(16.5)	0.983
	여자	28(14.4)	40(20.6)	31(16.0)	
연령	30대 이하	7(3.6)	4(2.0)	4(2.0)	10.230
	40대	8(4.1)	10(5.1)	10(5.1)	
	50대	10(5.1)	37(19.0)	22(11.3)	
	60대	15(7.7)	24(12.3)	18(9.2)	
	70대 이상	9(4.6)	8(4.1)	9(4.6)	
교육 수준	초등학교	7(3.6)	9(4.6)	10(5.2)	0.612
	중학교	6(3.1)	14(7.2)	11(5.7)	
	고등학교	17(8.8)	31(16.0)	22(11.3)	
	대학교	14(7.2)	25(12.9)	17(8.8)	
	대학원	5(2.6)	3(1.5)	3(1.5)	
연 소득 수준	1천만원 이하	14(7.3)	13(6.9)	14(7.3)	17.989
	1~2천만원	8(4.2)	16(8.4)	18(9.4)	
	2~3천만원	8(4.2)	14(7.3)	10(5.2)	
	3~4천만원	8(4.2)	13(6.9)	5(2.6)	
	4~5천만원	9(4.8)	10(5.2)	5(2.6)	
	5천만원 이상	2(1.0)	14(7.3)	10(5.2)	

\* p(0,05, \*\* p(0,01

이 각각 61명(31.6%), 43명(22.3%), 이주민이 각각 21명(10.9%), 20명(10.4%)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았다(표 10).

이러한 특징은 거주기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 집단은 5년 미만인 24명(12.8%), 5년 이상이 23명(12.3%)로 5년 미만으로 거주하였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5년 미만인 응답자가 각각 21명(11.2%), 17명(9.1%), 5년 이상인 응답자가 59명(31.6%), 43명(23.0%)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는 결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공동체 내부, 외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더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5년과 10년에서는 기간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 간 분포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15년, 20년부터는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기간의 차이는 결국 이주민과 원주민의 차이로, 농촌으로 이주해온 귀농·귀촌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원주민들과 동일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을 가지려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주민이 원주민들과의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소속 단체 여부에서 개인주의 집단은 있는 주민이 26명(13.3%),

없는 주민이 23명(11.8%), 가족주의 집단에서 소속 단체가 있는 주민이 60명(30.8%), 없는 주민이 23명(11.8%), 사회발전주의 집단에서 소속 단체가 있는 주민이 54명(27.7%), 없는 주민이 9명(4.6%)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집단은 소속 단체가 있는 주민과 없는 주민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에서는 소속 단체가 있는 집단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책 여부에서 개인주의 집단은 있다는 주민이 12명(6.2%), 없다는 주민이 37명(19.0%), 가족주의 집단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다는 주민이 37명(19.0%), 없다는 주민이 46명(23.6%), 사회발전주의 집단에서 있다는 주민이 29명(14.8%), 없다는 주민이 34명(17.4%)로 나타났다.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직책이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였지만, 개인주의 집단은 맡고 있는 직책이 없는 주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 참여 경험에서 개인주의 집단과 가족주의 집단은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34명(20.8%), 43명(26.4%)로 더욱 높았지만,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서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표 10〉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지역 사회적 특징

요인명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별 집단			전체 (n=195)	x <sup>2</sup>		
	개인주의(n=49)	가족주의(n=83)	사회발전주의(n=63)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주민 특성	원주민	24(12.4)	<b>61(31.6)</b>	<b>43(22.3)</b>	128(66.3)	8.220*	
	이주민	24(12.4)	21(10.9)	20(10.4)	65(33.7)		
거주 기간	5년	미만	24(12.8)	21(11.2)	17(9.1)	62(33.2)	9.152**
		이상	23(12.3)	<b>59(31.6)</b>	<b>43(23.0)</b>	125(66.8)	
	10년	미만	29(15.5)	31(16.6)	26(13.9)	86(46.0)	6.530*
		이상	18(9.6)	<b>49(26.2)</b>	<b>34(18.2)</b>	101(54.0)	
	15년	미만	31(16.6)	41(21.9)	30(16.0)	102(54.5)	3.319
		이상	16(8.6)	39(20.9)	30(16.0)	85(45.5)	
	20년	미만	46(24.6)	76(40.6)	57(30.5)	179(95.7)	0.709
		이상	1(0.5)	4(2.1)	3(1.6)	8(4.3)	
소속단체	있음	26(13.3)	<b>60(30.8)</b>	<b>54(27.7)</b>	140(71.8)	14.530**	
	없음	23(11.8)	23(11.8)	9(4.6)	55(28.2)		
직책유무	있음	12(6.2)	37(19.0)	29(14.8)	78(40.0)	6.591*	
	없음	<b>37(19.0)</b>	46(23.6)	34(17.4)	117(60.0)		
사업참여 유무	있음	9(5.5)	26(16.0)	24(14.7)	59(36.2)	7.011*	
	없음	<b>34(20.8)</b>	<b>43(26.4)</b>	27(16.6)	104(63.8)		

\* p<0.05, \*\* p<0.01

적 특성의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별 집단에 따른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거주기간 별로 사회자본 인식 수준별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년까지는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높았으나, 15년부터는 비슷한 분포도를 보였다. 개인주의는 반대로 거주기간 5년에서는 5년 미만과 5년 이상이 비슷하였으나, 10년, 15년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10년 미만, 15년 미만 거주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즉, 사회적 자본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향상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거주기간이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높이지는 않는 것이다.

소속된 단체가 있거나, 맡고 있는 직책이 있을수록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관계에서 생산되는 자본으로 주민 간에 관계를 많이 형성했던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 단체가 있거나 직책을 가진 주민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비슷한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2.7. 집단별 참여단계 평균차이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에 따라 참여의도의 가장 낮은 단계인 정보제공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보지를 읽어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봄, 이장의 의견을 들어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봄의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지를 읽어봄의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은 평균 3.30, 가족주의 집단은 평균 3.81,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평균 4.31로 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주의 집단은 정보제공 수준의 참여의도가 3점 초반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집단과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모든 항목에서 3.5이상으로 정

보를 제공받는 수준의 참여에는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주의보다는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참여의도가 더욱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표 11).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에 따라 참여의도의 중간단계인 협의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업설명회에 참석함, 설문조사에 협조함, 의견을 제시함, 주민교육에 참석함, 인터뷰에 협조함의 5가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겠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63,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4.13,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65로 개인주의, 가족주의, 사회발전주의 집단 순으로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협조 한다는 항목에서는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63,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4.22,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68, 의견을 제시한다는 응답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26,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4.08,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53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민교육에 참석한다는 응답이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65, 가족주의집단이 평균 4.15,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63,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협조한다는 응답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30,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89,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42로 나타났다(표 12).

모든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은 가장 낮은 참여의도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가족주의와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참여단계는 모두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가족주의보다는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협의 단계의 참여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주의 집단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항목과 인터뷰에 응한다는 항목은 협의 단계의 참여수준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개인주의 집단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나 주민교육과 같은 참여 형태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특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인터뷰와 같은 참여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 평균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집단은 평균 3.49로 평균적이었으며, 가족주의 집단은

(표 11)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정보제공 평균 차이

구분	개인주의 (Ⅰ)	가족주의 (Ⅱ)	사회발전주의 (Ⅲ)	Duncan의 사후검정
정보 제공				
정보지를 읽어봄	3.30	3.81	4.31	I < II < III **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봄	3.44	3.95	4.38	I < II < III **
이장의 의견을 들어봄	3.38	4.07	4.41	I < II < III **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봄	3.40	4.07	4.44	I < II < III **
정보제공 전체평균	3.38	3.97	4.38	I < II < III **

\*\* p<0,01

〈표 12〉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협의 평균 차이

구분	개인주의 (I)	가족주의 (II)	사회발전주의 (III)	Duncan의 사후검정	
협의	사업설명회참석함	3.63	4.13	4.65	I < II < III **
	설문조사에 협조함	3.63	4.22	4.68	I < II < III **
	의견을 제시함	3.26	4.08	4.53	I < II < III **
	주민교육에 참석함	3.65	4.15	4.63	I < II < III **
	인터뷰에 협조함	3.30	3.89	4.42	I < II < III **
	협의 전체평균	3.49	4.09	4.58	I < II < III **

\*\* p<0,01

〈표 13〉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별 적극적 참여 평균 차이

구분	개인주의 (I)	가족주의 (II)	사회발전주의 (III)	Duncan의 사후검정	
적극적 참여	사업관련자와 소통함	3.38	3.92	4.41	I < II < III **
	우수사례 찾아봄	3.32	3.96	4.39	I < II < III **
	직책을 맡음	2.20	2.68	3.50	I = II < III **
	개인시간을 투자함	2.59	3.19	3.88	I < II < III **
	주민의 협력을 유도함	2.89	3.63	4.26	I < II < III **
	정기적 회의시간 만듦	2.69	3.21	4.25	I < II < III **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3.14	3.62	4.46	I < II < III **
	적극적 참여 전체평균	2.89	3.46	4.17	I < II < III **

\*\* p<0,01

평균 4.09,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평균 4.58로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개인주의, 가족주의, 사회발전주의 집단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에 따라 참여의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적극적 참여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업 관련자와 소통함, 우수사례를 찾아봄,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음, 개인 시간을 투자함, 주민의 협력을 유도함, 정기적 회의 시간을 만듦,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의 7가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관련자와 소통한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38,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92,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39 우수사례를 찾아본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32,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96,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39로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책을 맡는다는 항목에서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집단과 사회발전주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2.20,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2.68,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3.50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항목에서보다 세 집단 모두 다소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모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 시간을 투자한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2.59,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19,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3.88, 주민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2.89,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63,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26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기적 회의 시간을 만든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2.69,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21,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26,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에서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3.14, 가족주의 집단이 평균 3.62, 사회발전주의 집단이 평균 4.46으로 조사되어 개인주의 집단보다는 가족주의 집단이 보다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냈고, 가족주의 집단보다는 사회발전주의 집단의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주의 집단이 평균 2.8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주의 집단은 3.46으로 평균, 사회발전주의 집단은 4.17로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도시에

비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동체 회복과 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촌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자원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민 스스로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주민참여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농촌 주민의 내부적 고찰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자본 이론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Woolcock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주민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론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통합성뿐만 아니라 연계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내부적인 관점에서만 측정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내부적인 관점인 통합성과 외부와의 관계인 연계성의 2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농촌 사회와 그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유형의 연계와 지역 간 연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의 긍정적 영향을 논의했던 선행연구 결과와 (이미숙, 2017; 장은미, 이민수, & 박병덕, 2021; 김철희, & 하혜수, 2016; 임살아, & 정성호, 2017; 이양수, 2017)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고 사업에 반영함에 있어서 기존 공동체 내부적인 관점에만 치중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농촌 사회, 농촌 공동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통합성과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촌 주민들은 통합성과 연계성의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해본 결과 통합성과 연계성이 모두 낮은 개인주의 집단, 통합성은 높지만, 연계성은 낮거나 보통인 가족주의 집단, 통합성과 연계성이 모두 높은 사회발전주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3가지 유형의 집단이 가지는 인구통계학적, 지역사회적 특성과 사업 참여의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농촌 주민의 통합성과 연계성 사회적 자본 인식을 모두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Woolcock(1998)

의 연구에서 통합성과 연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집단이었던 것과 동일한 연구결과 이다. 즉,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발전주의 집단을 많이 형성해야 할 것이며, 농촌 주민개인의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에 맞는 참여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 간 형성되는 통합성 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외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연계성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는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에 맞게 현장에서 참여 유도 방안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을 수립할 때 연계성 사회적 자본을 향상과 사회적 자본 수준별 참여방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과 그 비율을 농촌마을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특정 공동체가 아닌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을 조사하여 농촌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 집단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동체 특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3가지 유형의 집단이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유형으로만 나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공동체에 따른 사회적 자본 인식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고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인식수준 집단 분포를 세분화하는 연구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전후 조사를 통한 참여의도와 참여행동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행동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전후 비교를 통하여 참여의도가 참여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한다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 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사업 추진 전·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실제로 농촌 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향상시키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진단함으로써 통합성과 연계성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강형기. (1989). 지방선거운동과 주민의 정치의식. *지방자치연구*, 1(1), 121-151.
2. 김상춘. (2004). 부르디외, 콜만, 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3. 김수. (2018).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본 마을공동체 참여 행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수미. (2013). 주민참여 유형이 아파트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인구. (2007).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요인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재원. (2017). 농촌마을융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지*, 19(64), 11-22.
7. 김철희, & 하혜수. (2016).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Woolcock의 사회적 자본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1(1), 79-103.
8. 김치구. (2018).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통한 농업조직 활성화 요인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노정민. (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류석춘. (2003). *사회적 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그린.
11. 류소영. (2010). 주민참여수준 진단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박미애. (2008).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사업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박병덕, 임광명, & 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doi:10.12653/jecd.2018.25.3.0135
14. 박용순. (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박은병, 김성록, & 윤준상. (2012).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9(2), 436-464. doi:10.12653/jecd.2012.19.2.435
16. 박재형. (2014). 로컬푸드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박희봉, & 김명환. (2001), 우리 나라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18. 손정기. (2016). 음식관광행동 예측을 위한 수정된 계획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안재문, 김소윤, & 박덕병. (2020). 농촌개발사업 영향인이 지역사회민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7(4), 211-225. doi:10.12653/jecd.2020.27.4.0211
20. 안종철, & 이성호. (2003).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 주민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14, 92.
21. 유석춘, & 장미혜. (2002). 사회적 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22. 유동수, & 홍경완. (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의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31(3), 65-80.
23. 이미숙. (2017). 한국 마을단위 사회적 자본의 형성. *농촌지도와 개발*, 24(3), 199-209.
24. 이상호, & 박재동. (2009).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의사결정 분석. *동북아관광학회지*, 5(2), 77-89.
25. 이수. (2016). 중국 농촌 관광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관광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이승원. (2016).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ETPB)을 적용한 커피전문점의 그린마케팅 프로그램, 고객참여의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이양수. (2017). 울록의 사회적 자본 이론관점에서 살펴본 1970년 새마을 농촌개발정책:배태성, 자율성 그리고 국가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4), 199-220.
28. 이용학. (2015). 지역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사회표상별 주민태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정원. (201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 임설아, & 정성호. (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8(1), 79-99.
31. 이양수. (2017). 울록의 사회적 자본 이론관점에서 살펴본 1970년 새마을 농촌개발정책:배태성, 자율성 그리고 국가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4), 199-220.
32. 장은미, 이민수, & 박덕병. (2021).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공 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8(3), 137-151. doi:10.12653/jecd.2021.28.3.0137
33. 장철호, & 한상연. (2004). *행정과 시민참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34. 전인철. (2014). 농촌지역개발의 공공지원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 정남식, & 김용근. (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공유재 관리의도 영향요인분석. *농촌계획학회지*, 23(4), 169-178.
36. 정동일, & 성경룡. (2010).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비즈니스: 신활력사업 대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1), 60-97.
37. 전용식, & 이종호. (2008).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2), 63-77.
38. 정윤식. (2014).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 진양호, 안상훈, & 김예영. (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외식 소비자의 구매행동 분석. *관광연구저널*, 30(1), 151-162.
41. 최윤진. (201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와인구매의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 최홍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회지*, 38(6), 97-132.
43. 허주열, &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44. 홍종규. (2006).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홍영란. (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46.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doi:10.1080/01944366908977225
47. Bourdieu, P., & Passeron, J. C. (1967). Sociology and philosophy in France since 1945: Death and resurrection of a philosophy without subject. *Social Research*, 34(1), 162-212.
48.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J. G.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49. Brown, L. D., & Ashman, D.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 1467-1479.
50. Burt, R. (199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51.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oi:10.1093/oso/9780195159509.003.0007
52.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589-602. doi:10.2307/975227
53. Fukuyama, F. (2002).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The coming agenda. *SAIS Review*, 22(1), 23-37. doi:10.1353/sais.2002.0009
54.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countries*.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55. Irland, L. C. (1975). Citizen participation: A tool for conflict management of the public lan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3), 263-269. doi:10.2307/974761
56. Loury, G. (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s. In P. A. Wallace & A. Le Mund (Eds.),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57. OECD. (2001).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OECD Publications.
58.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 35-42.
59. Wates, N. (201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London, Routledge. doi:10.4324/9781849776004
60.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61. World Ban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New York: The World Bank.

Received 17 March 2022; Revised 21 March 2022; Accepted 25 March 2022



Dr. Mi Ri Jun is an Extension Specialist of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She is interested in research related to rural and rural development.

Address: (18388) 283-33, Byeongjeom jungang-ro,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jmr0403@gg.go.kr

phone: 82-31-229-5852